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2010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4강 신화'를 이룬 한국 여자 대표팀 지소연(왼쪽)과 김혜리(오른쪽)가 27일 오전 독일 보쿰 경기장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男도 못 이룬 '결승신화' 쓴다

태극낭자들 오늘밤 U-20 월드컵 독일과 결승행 대결

한국 여자축구 사상 처음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주관 대회 4강 진출을 이룬 태극낭자들이 다시 한번 한국축구사를 새로 쓴다.

최인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U-20) 여자축구대표팀은 29일 오후 10시30분(이하 한국시간) 독일 보훔 레비어파워 경기장에서 개최국 독일과 2010 FIFA U-20 여자월드컵 준결승 경기를 치른다.

◇**독일 넘으면 우승도 가능**=이번 독일과 4강 경기는 사실상 결승전이라 할 만하다. 이기면 콜롬비아-나이지리아전 승자와 8월 1일 오후 10시 빌레펠트에서 우승컵을 놓고 다툰다.

올해까지 다섯 차례 대회에 모두 참가해 4회 연속 8강 진출에 성공한 나이지리아는 강력한 우승 후보인 미국을 승부차기 끝에 꺾고 처음으로 4강에 올랐다. 콜롬비아는 처음 대회 본선에 출전해 4강 진출을 이뤘다. 두 팀 모두 만만찮지만 그래도 독일보다는 해볼 만한 상대라는 평가다.

최인철 감독은 "이번 대회 목표는 우승"이라며 "독일을 넘어서면 우승에 60% 정도 다가서는 셈"이라고 말했다. 주장인 중앙수비수 김혜리(여주대)도 "지금 4강 신화를 창조했다고 하는데, 우리의 목표는 독일을 꺾고 결승에 올라 우승 트로피를 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연 넣고, 문소리 막고**= 한국의 선발라인업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여자축구의 희망이자 이번 대회 득점상(골든슈) 및 최우수선수상(골든볼) 후보인 지소연(한양여대)이 정혜인(현대제철)과 4-4-2 포메이션의 투톱으로 골사냥에 나선다. '지메시' 지소연은 이번 대회 6골로 독일 알렉산드라 포프(7골)에 한 골 뒤져 득점 랭킹 2위를 달리고 있다. 160㎝의 단신이지만 골 결정력은 물론 뛰어난 볼 컨트롤과 패싱 능력을 갖춰, 처진 스트라이어 겸 공격형 미드필로서 임무까지 해내면서 팀 공격을 책임진다. 좌·우 날개에는 김진영과 이번 대회에서 3골을 넣은 이현영(이상 여주대)이 서고, 중앙 미드필드에서는 김나래(여주대)와 이민아(영진전문대)가 호흡을 맞춘다. 코너킥 등을 전담하며 가나와 조별리그 2차전(4-2 승)에서 그림같은 프리킥으로 한 골을 뽑았던 김나래는 저돌적인 돌파와 날카로운 패스,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중원사령관 구실을 묵묵히 해왔다.

골문 앞에는 변함없이 문소리(울산과학대)가 선다. 8강까지 네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며 4실점한 문소리는 경기마다 수 차례 상대의 결정적 슈팅을 막아내며 4강 진출에 큰 힘을 보탰다.

독일 역시 전력누수 없이 득점 1위 포프를 비롯해 두 골씩 넣은 왼쪽 날개 실비아 아르놀트, 중앙 미드필더 마리나 헤게링 등 베스트멤버가 총동원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지소연 "득점왕보다 팀 승리가 우선"

"골을 넣는 것보다는 팀의 승리가 우선이다."

2010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8강전까지 6골을 터뜨리며 한국의 4강 진출을 견인한 지소연(한양여대)은 28일(한국시간) 독일 보훔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득점왕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골을 넣는 것보다는 팀이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승까지 자신있다"고 말했다.

지소연은 "우리가 4강에 오른 것은 내가 골을 넣어서가 아니라 다른 훌륭한 선수들이 다 같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소연은 "물론 득점왕에도 욕심이 있다"면서 "취침 전후, 경기 전 등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골을 넣겠다'는 식의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미국 진출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표시했다.

지소연은 "미국에 진출해 세계 최고 선수로 알려진 마르타와 함께 뛰고, 한국에도 훌륭한 선수가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대회가 끝나면 (미국 진출 여부를) 알게 될 것 같다"면서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감독님과도 조금 얘기를 나눠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표팀 관계자는 "미국, 독일, 러시아 등의 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촉이 이뤄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소연은 자신의 꿈으로 미국 진출, 성인 월드컵 출전, 한국 여자축구 발전 등 3가지를 꼽았다.

세계 최고의 테크닉을 가진 것으로 평가돼 '여자 메시'로 불리는 지소연은 또 최인철 감독에 대해 "운동장에서는 무섭지만 개인적으로 장난도 잘치고, 부드럽고, 잘 생겨서 좋다"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연합뉴스

리듬체조 대표평가전 1위… 광저우 금빛연기 기대

신수지(19·세종대·사진)가 리듬체조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1위를 차지해 11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기대감을 부풀렸다.

신수지는 28일 노원구 공릉동 태릉선수촌에서 열린 평가전에서 줄-후프-볼-리본 등 4종목 합계 105.375점을 획득, 104.625점을 받은 손연재(16·세종고)를 간발의 차로 따돌리고 국내 최정상을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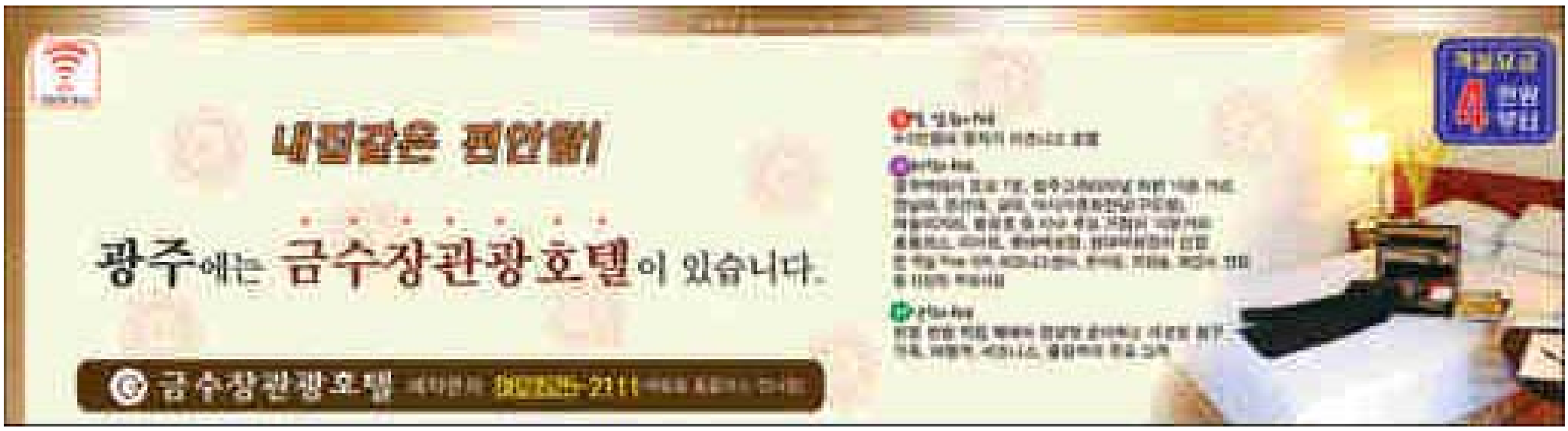
김윤희(19)가 102.500점으로 3위, 이경화(22.이상 세종대)가 100.825점으로 4위를 달렸다.

왼쪽 발목을 다쳐 지난 3월 대표 1차 선발전에 뛰지 못했던 신수지는 이날 평가전을 겸한 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당당히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 14일 끝난 회장배대회에서 대학부 5관왕을 달성한 신수지는 4종목 모두 26점이 넘는 고른 기량을 선보였고 볼에서 가장 높은 26.600점을 받았다.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자마자 신수지를 턱밑까지 쫓은 손연재는 리본에서 신수지보다 0.1점 많은 26.300점을 받았지만 나머지 종목에서 약간씩 점수가 깎여 아쉽게 1위를 놓쳤다. 평가전을 지켜본 김지영 대한체조협회 리듬체조 기술위원장은 "수지는 경험을 앞세운 카리스마 넘친 연기를 펼쳤고 연재는 정확성 있게 동작을 연결했지만 아직 어린 탓인지 작은 실수를 범했다"고 평했다.

김 위원장은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종합 금메달과 팀 경기(3명의 개인종합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매기는 경기)에서 은메달을 바라보고 있다"면서 "수지와 연재 모두 메달을 기대할 만큼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 8월 이탈리아 월드컵대회와 9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경험을 쌓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물에서 더 빛나는 그녀들

멕시코의 싱크로나이즈드 수영팀이 28일(한국시간) 푸에르토리코 마야게스(Mayaguez)에서 열린 '센트럴 아메리카 & 캐리비안 게임'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단체 테크니컬 루틴 결승에서 금빛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